

고흥 '애향 인적네트워크' 추진

郡 공무원-지역 출신 중앙공무원 1:1 자매결연

지역 연계 가능 국책사업 발굴 활용 분기별 실적 평가 인센티브도 제공

고흥 군청 공무원과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대규모 자매결연을 맺은 '애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애향 인적네트워크' 사업은 고흥군 분청 6급 이상 간부 103명과 고흥 출신으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03명이 1:1로 연결된다.

자매결연을 맺은 군청 공무원들은 결연 공무원을 통해 중앙부처 정책방향과 동향 등을 파악하고 군내 각종 행사나 주요 군정시책 등의 고흥소식을 전달한다.

이들은 매월 1회 ▲중앙부처에서 시행한 주요 시책사업 중 고흥군에 적용시켜 실현 가능한 사업 ▲향우들의 인사 및 부처 주요 동향 ▲애향 결연공무원과의 협조내용 등을 기재한 결연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 중앙부처 결연자로 부터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앙부처 시책 ▲고향 발전을 위한 창의

적인 제안과 아이디어 ▲중앙부처 주요 동향사항 및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실적 평가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은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게 될 결연식을 위해 이미 중앙부처 결연대상자에게 결연 취지 및 목적설명, 군정발전 협조를 당부하는 고흥군수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날 결연식은 군정홍보 영상물 상영 및 상견례, 상호 유대강화 및 협력을 다짐하는 '결연협정서' 조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개나리에 취한 여심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강진군 청사 뒤편 언덕배기에 개나리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다. /광진=이병철기자 mood@

“포괄사업비 폐지” 空約 이었나

전원준 군수 4억1천만원 편성 '물의'

전원준 화순군수가 포괄사업비를 없애겠다는 당초 공언과는 달리 포괄사업 예산으로 4억1천만원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화순군은 포괄사업예산 4억1천만원을 이달 추경에 편성,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 군수는 지난해 10·25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포괄사업비가 선심성 행정과 부조리 온상”이라며 “포괄사업비를 없애 투명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발언 반복’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행주 군의원은 “군수가 취임 초부터 일체의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한마디 해명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며 “군수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공약’을 남발 해서 안된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지난 연말에도 전임 군수 재직시 편성했던 포괄사업비 2억2천만원을 집행해 도마위에 올랐었다.

군 관계자는 “음·면에서 경로당 지원비 등 포괄사업예산 편성을 건의해 와 음·면장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주민숙원 사업비로도 불리는 포괄사업비는 자치단체장 등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칭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 쌈짓돈’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고사리 손’의 정화 활동

21일 영암초등학교 학생 60여 명이 학교 앞 망호천에서 정화활동을 벌였다. 이날 영암지역에서는 15개 하천·저수지에서 푸른영양21, 소방대, 농촌공사, 한전 등 각종 사회단체와 공무원 등 1천500여명이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펴 쓰레기 50t을 수거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못자리 벼 육묘용 상토

영암군, 농가 무상공급

영암군이 주민들에게 못자리 벼 육묘용 상토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영암군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한해 농사의 첫 단계인 못자리 벼 육묘용 상토를 희망하는 모든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군은 16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상토 42만 5천514포대를 농협을 통해 내달 초까지 공급한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태권도 종주국서 한수 배워가야죠”

캐나다 여자 국가대표팀 강진 성화대서 구슬땀



캐나다 여자 태권도 국가대표팀이 지난 16일부터 강진 성화대에서 태권도 종주국의 기량을 연마하며 구슬 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

대학생 5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이들 캐나다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23일까지 성화대 선수들과 기량을 연마할 예정이다. 이들이 강진에서 합숙훈련을 벌이게 된다는 경우용 캐나다대표팀 감독과 최공

집 성화대 교수와의 친분 때문. 한편 강진 성화대학교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태권도 협회는 지난 19일 성화대학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태권도를 통한 상호 우의와 친선을 다짐했다. /광진=이병철기자 mood@

“학교 방문해 주민증 발급해 드립니다”

광산구 ‘찾아가는 주민증 발급 시스템’ 실시

광산구가 주민증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광산구는 다음달부터 업무시간에 동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관내 고교생을 위해 학교에서 주민증을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을 시범 실시한다.

또 민원인의 사전 예약이 있을 경우 동사무소에서 업무시간 이후에 주민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도 시행한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은 관계 공무원이 해당 학교를 방문, 대상자들의 지문날인과 신청서를 받아 이를 관할 동사무소에 인계한 뒤 담당자가 다시 학교를 방문해 주민증을 교부한다.

한편 ‘주민등록민원예약처리제’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서민 가능한 주민증 신규·재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예약처리제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미리 전화해 처리할 업무를 예약하고 매월 2·4째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보존 비상

관광객들 갯벌 파헤쳐 훼손 심각

호미·삼 등 휴대금지 요청키로

진도군이 신비의 바닷길 보존에 고심하고 있다.

훼손이 더 이뤄질 경우 바닷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으나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군이 지난 해 바닷길을 조사한 결과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호미와 삼 등으로 갯벌을 파헤치며 낙지와 바지락 등을 채취해 바닷길이 낮아지는 등 훼손이 심각한 상태에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경 진도군 학예연구사는 “굉장히 빠른 조류가 바닷길 위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호미질로 파놓은 갯벌들이 옆으로 퍼지면서 바닷길 고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진도군은 휴식년제를 도입하거나 관광객 입장을 금지 하는 강도높은 대책 대신에 일단 다음 달 축제 때 계몽 위주로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군내 환경단체 등 사회, 시민단체와 함께 축제 기간 바닷길 입구에서 호미 등 도구를 들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박연수 진도군수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이는 것 자체가 바닷길 생태 환경에 좋을 리가 없다”면서 “친환경적이면서 관광객을 잃지 않는 대안이 없어 고민이다”고 밝혔다.

‘바닷길 열려요! 통일로! 세계로!’라는 주제로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진도 씻김굿, 남도들노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가파른 경기침체로 판매되는 가구 가격이 대폭 낮아졌다. 4월 초 open 예정

모다쉬갤러리 광주직영전시장

최고급 가구, 인테리어, 조명,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

모다쉬갤러리 광주직영전시장 010-222-3002-3 김호철드 1층 010-353-8708

서두르십시오!

2007년 4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동점동 다이빌딩 상가 임대!

동점동 1000평 상가 임대

010-353-8708